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인식과 전략

박 승 주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경제국장

I. 새로운 지역경제시대를 맞이하여

IMF 외환위기 속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온국민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 5년간 고통을 분담하면서 과감한 인력감축과 낭비성 구조의 혁신적 개편으로 방만한 경영행태를 없애는 등 지속적으로 각종 개혁을 추진한 결과, 우리는 단기간내 외환위기를 벗어나게 되었다. 당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의 외환위기 극복기간을 제네바 비정부국제기구는 10년, IMF 미셸 캉드쉬 총재는 한세대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우리는 이런 예측을 여지없이 깨고, 짧은 기간내에 극복하므로써 세계를 놀라게 했다.

1999년부터 시작된 무역수지 흑자 기조는 2002년 까지 지속되어 외환보유고는 1,155억달러로 홍콩을 제치고 세계 4위국

가로 급부상했고, 금융권은 전국의 21개 은행 중 20개 은행이 흑자로 전환되어 건설한 경영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상장기업 10% 이상은 작년 종전 최고이익을 경신하는 등 국내경기가 회복국면을 이미 넘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정부는 21세기 두뇌·인터넷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Brain·Cyber Korea 21” 계획을 수립하고 국가전략산업인 IT·BT 등 정보화 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린 결과, LG필립스LCD는 세계최초의 제5세대 LCD 생산공장을 구미에 설립, 금년 하반기에는 일본 샤프사를 재치고 세계 시장에서 수위에 오를 전망이고, KT는 지난 5월에 세계 최고속도의 데이터송수신이 가능한 서비스를 개시하여 올해 이익이 전년비 60~7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리하여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 피치, S&P에서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A등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우리경제